ECONOMIC FOCUS

2025. 11. 3.

Global Macro Team

정성태 Senior Economist
sungtai.chung @samsung.com

금종호 Economist
jongho.keum@samsung.com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한국 10월 수출

예상 부합; '26년 수출 전망 7.5%에서 9.5%로 상향

- 10월 한국 수출 당사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으며, 일평균도 14%로 양호. 반도체와 일시적인 선박 수출을 제외하면, 9~10월 평균 0%로 수출의 쏠림 현상 여전
- 반도체업황을 감안하여 '26년 수출 전망을 기존의 7.5%에서 9.5%로 상향 조정(상반기 10.8%, 하반기 7.2%). 또한, 수출 양극화 현상도 하반기 다소 완화 예상

'25년 10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3.6% 증가한 595.7억 달러로 당사(5.0%)와 시장 예상(2.1%)에 대체로 부합했다(이하 전년 대비). 한편, 일평균 수출은 추석 명절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2일 감소하여 14.0%를 기록했다. 또한, 추석명절 시점의 변화를 감안한 9~10월 평균은 8.2%로 한국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다. 다만, 반도체(25.4%)와 일시적으로 증가한 선박(131.1%)을 제외한 10월 수출은 -8.7%(일평균은 0.3%)로 부진했다(9~10월의 평균 0.0%, 일평균 -4.5%).

10월 한국 수출의 세 가지 특징 및 '26년 수출 전망 상향 조정

첫째, 반도체 수출은 꾸준한 HBM 수요와 DDR4 등 범용 반도체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9월 22.0%에 이어 10월에도 25.4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. 범용 제품의 가격 상승(DDR4 311.8%, DDR5 114.8%)은 HBM의 생산 비중이 확대되어 공급이 축소된 영향이다. 낸드 가격도 AI 서버 저장용량의 확대로 9월 -12.7%에서 10월에는 41.6%로 상승했다. 한편, 당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'26년 주요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을 40%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둘째, 자동차 수출(-10.5%)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조업 일수 감소를 감안하면 양호했다. 다만, CIS 지역에 대한 수출 급증(84.9%)을 감안하면 관세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. 석유제품 수출(12.7%)도 양호했는데, 지난해 정기보수의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. 나머지, 화학(-22.0%), 가전(-19.8%), 무선통신(-10.9%), 디스플레이(-8.7%) 등도 -8%pts 내외로 추정되는 명절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부진한 편이었다.

셋째, 지역별 수출에서는 인도(-1.2%), EU(-2.0%), 아세안(-6.5%) 등은 해당 지역의 경기를 반영하여 양호했지만, 미국(-16.2%)은 고율 관세의 영향으로 부진을 지속했다. 중국(-5.1%)은 반도체 수출을 제외한 석유화학, 무선통신,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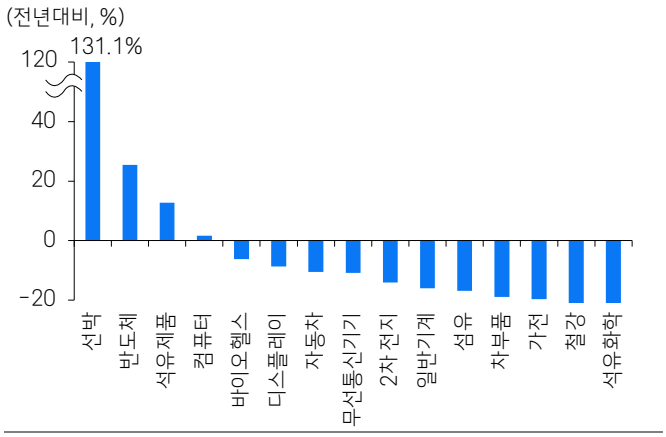
한편, 당사는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의 상향,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, 주요국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교역 여건의 개선 등을 감안하여, '26년 한국 수출 전망을 기존의 7.5%에서 9.5%로 상향 조정한다(상반기 10.8%, 하반기 7.2%). 다만, 수출 증가의 90% 이상이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수출 양극화는 지속되며, 이러한 현상은 '26년 하반기 중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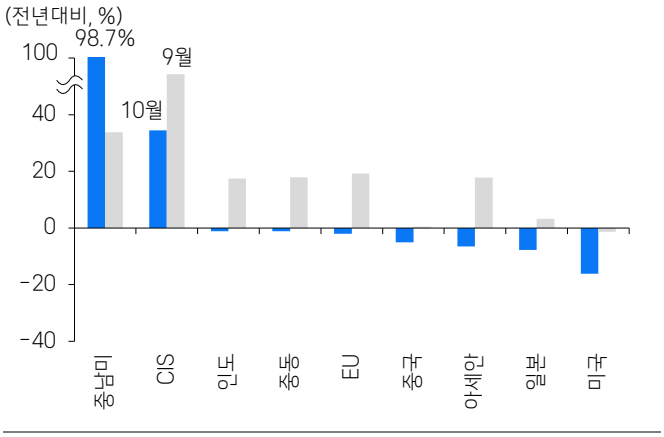
삼성증권

10월 품목별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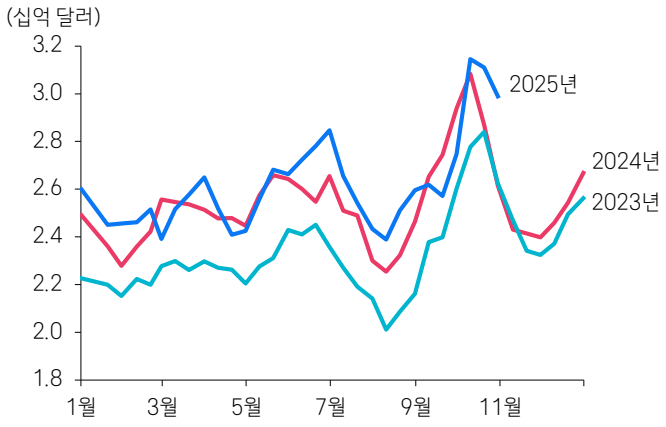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삼성증권

10월 지역별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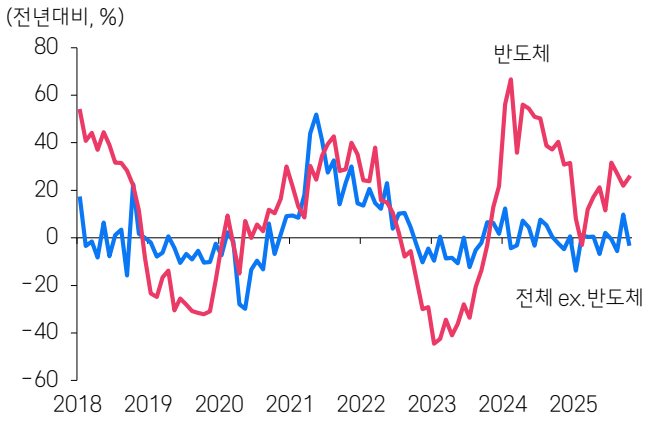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삼성증권

한국 일평균 수출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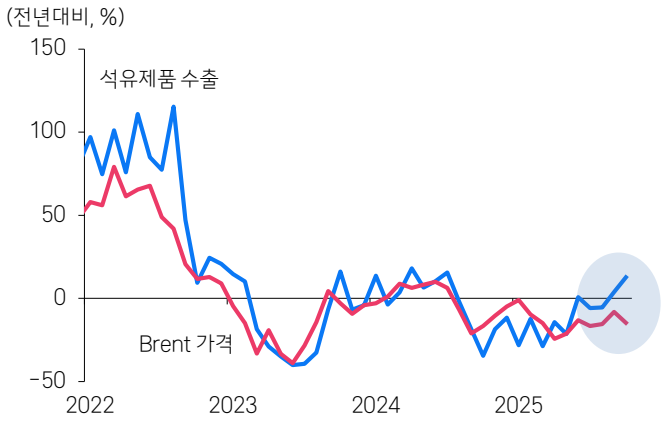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삼성증권

한국 반도체와 반도체 외 수출의 격차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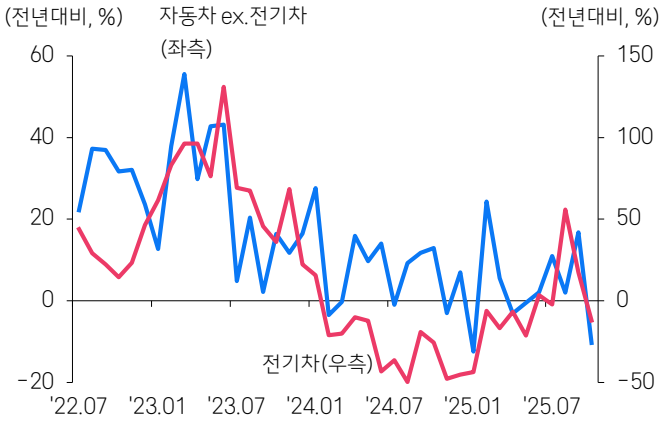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삼성증권

글로벌 유가 하락에도 석유제품 수출 개선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St. Louis Fed, 삼성증권

한국 자동차 수출 추이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삼성증권
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Member of
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